

원죄까지 해결하는 구세주 출현

원죄까지 뿌리째 뽑아주는 구세주가 출현하셨다. 자신뿐만 아니라 조상이 지은 죄를 완전히 해결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마조록(馬祖錄)에는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풀이하면 기왓장을 아무리 갈아봤자 새카만 재만 흩날릴 뿐이지 거울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 말인즉슨 '나라는 것을 아무리 잘 갈고 닦아 수도하여도 하나님 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 사순절을 지키는 기독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종교들 즉 기독교, 천주교 등에서는 사순절(四旬節)이라는 절기를 지낸다.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소위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날로부터 40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흠으로부터 온 인간이 흠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마에 재를 바르며 고행을 보내는 40 일간의 기간을 말한다.

그들이 사순절을 왜 40 일간 지키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예수가 광야에서 마귀에게 40 일간 유혹을 받으며 수난을 이겨냈다는 뜻이 있다고 기독교인들은 해석한다. 그런데 과연 예수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을까. 만일 예수가 마귀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면 사순절을 지키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

◆ 마귀의 정체

마귀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살펴보자. 사망의 세력은 마귀가 잡고 있다(히브리서 2:14)고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한다고 로마서 6장 16-17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 쓰면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종이 되어 사람은 죽는다는 뜻이다. 한편 죄의 삶은 사망(로마서 6:23)이며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야고보서 1:15)고 하였다. 이 말씀을 또한 풀어 쓰면 '사람이 지은 죄가 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말씀이다. 따라서 이 두 문장을 합쳐보면 '사람의



▲ 구세주 보광 이후에 내린 감로 이슬성신, 원죄까지 제거해주는 살마광선(殺魔光線)이다

사망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며 사망 권세는 마귀의 소유이다라는 문장이 된다. 이 문장을 수학적으로 쓰면 '마귀=죄=사망'이 된다. 그런데 죄는 욕심에서 나온다(야고보서 1:15)고 하였으니 '마귀=죄=욕심=사망'이 되며, 욕심은 '나라는 주체의식에서 나오므로 '마귀=죄=욕심='나라는 주체의식=사망'이라는 등식을 완성하게 된다.

지금까지 일반 종교에서는 마귀의 본체를 사람의 외부에 있는 어떤 형상이 있는 모습, 예컨대 머리에 뿔이 난 도깨비, 괴상하고 무섭게 생긴 흡혈귀, 처녀귀신 등과 같은 것으로 보았고 예수도 귀신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고 사탄을 쫓아냈다(마가복음 1:23-27, 누가복음 8장)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 예수는 마귀가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쫓아내면 다시 들어온다. 귀신을 죽여 없애버려야 한다.) 이간자 조희성 선생님은 마귀의 정체에 대하여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밝혀주셨다. 마귀는 바로 인간들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나라는 주체의식만 제거하면 죄를 해결한 사람 즉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이 되어야만 구원이 되는 것이지 사람으로서는 영생의 존재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죄의 뿌리

흔히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잘못하는 행동을 보고 죄라고 한다. 물론 죄가 맞다. 하지만 성경상으로 정의하는 죄는 잘못된 행동만이 아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야고보서 1:15)고 기록하고 있다. 욕심이 곧 죄라는 말씀이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욕심은 '나라는 주체의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죄의 뿌리는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말씀이다.

죄는 세 종류가 있다. 자범죄(自犯罪), 유전죄, 원죄이다. 자범죄란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은 죄를 말한다. 유전죄는 조상이 지은 죄이다. 조상과 자신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핏속에 조상이 지은 죄가 다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죄 또한 자신의 죄가 된다. '못 되면 조상 탓' 잘못만 자기 탓'이라는 속담은 틀린 말이다. 못 되거나 잘 되거나 다 자기 탓이다. 조상 따로 자기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이 곧 자기이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로 피로 만들어졌고 죽은 사람의 영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후손들의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 죄의 해결

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영모님께서 행하는 일의 뜻을 마귀세상에서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영모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피상적인 면만 보고 욕을 하고 모략을 하고 떨어져 나갔던 것이다. 영모님은 회사를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인들을 많이 모으는 역사를 하는데 뜻이 있었던 것도 더욱 아니었다. 다만 잃어버린 두 씨를 찾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영모님 속에 함께한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회복하고자 의인 두 사람을 찾으시려고 갖은 소를 다 했다는 것이다. 1962년도 해와 이간자를 이미 찾으셨으며 1980년도에 아담 이간자를 찾아 삼위(三位)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신 것이다. 그래서 1980년과 1981년도에 전도관을 팔고 공장을 팔고, 해산을 하였던 것이다.

조창기 이만제단시대부터 '기독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연일 단상에서 강하게 치시면서 '구원의 촛대가 전도관으로 옮겨졌다'고 선포하셨는데, 이제 와서 전국 전도관을 교회란 명칭으로 다 바꾸게 하니 이때가 1980년도 초반이었다. 이는 전도관에서도 구원이 없다는 것을 영모님께서 웅변한 것이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다.

사람이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자범죄, 유전죄, 원죄를 해결하여야 한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죄와 업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를 닦아야 한다. 격암유록은 은비가 비듯한 여러 구절에서 말세에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수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송가전에는 우리 민족이 3가지 환란을 당하는데 첫째 환란인 입진왜란 때에는 소나무 밑으로 피해야 생명을 보전할 수 있고, 둘째 환란인 병자호란 때에는 집에 그대로 있어야 살 수 있으며, 셋째 환란인 말세를 당하여서는 정도령에게 가서 수도하여 감로를 받아야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活我者誰 三人一夕 都下止 天城)고 하였다. 정도령(이간자 구세주)을 믿는다고 죄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나라는 의식이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나라는 의식이 있는 한 아무리 위대한 존재를 믿어서도 죄를 벗어날 수는 없다. 죄의 뿌리가 되는 '나라는 의식을 제거해야만 한다. 문제는 '나라는 의식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에 있다. 사람이 자신의 주체영이 되는 '나라는 의식을 제거할 수 있을까. 답은 불가능하다.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다는 불가(佛敎)의 이야기처럼 '나라는 것을 아무리 잘 갈고 닦아도 (수도하여도) 하나님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다. 오직 '나라는 의식을 죽여 없앨 수 있는 존재는 구세주뿐이다. 구세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감로의 영을 받아야 원죄가 되는 '나라는 의식을 벗어날 수 있다.

전도관을 이끌었던 박태선 장로님도 구세주 조희성님이 원죄를 뿌리째 뽑아서 해결해주는 분이라고 증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는 인간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빨리 구세주를 영접하고 그분의 성령을 받아 영생의 존재로 거듭나자. 한시가 급하다.*

출처: 유튜브 '진지아롱TV'

맨 꼬리가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이간자가 출현한 이후부터, 영모님이 행하신 전도관 해산작전이 너무나 완벽한 지략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간부들과 교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아한 표정만 멍하게 지을 뿐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분주히 움직일 뿐이었다. 영모님은 신앙촌이 곧 부도가 나게 생겼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할 일을 다 못해서 부도를 안낼 수가 없게 생겼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여기가 부도가 나면 모두 사망으로 옮겨져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신앙촌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질서가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서도 말뭉치가 힘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 이때만 해도 간부들은 쓸모없는 땅이나 유지가 되지 않는 전도관을 팔아서 자금을 좀 마련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영모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정말 깜짝 놀랄 일을 하도록 지시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서울 원효로 이만제단(1중양)과 송인동 3중양 전도관, 미아동 2중양 전도관, 하왕십리 9중양 전도관, 신길동 4중양 전도관 등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내리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는 것이 육천 년간 가리어졌다”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主體意識)이 마귀라는 것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몰랐던 것이다. 일곱 번째 인을 때는 자라야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는 것이 육천 년간 베일에 가리어져 있었던 것

이다. 이것을 육천 년 만에 야기신 하나님께서 벗기신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원래가 하나님이었으며 이제 다시 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나 완전한 하나님이 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기는 삶

무심(無心)

어떤 수좌 한 사람이 선(禪)의 본체를 잡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 선의 본체는 무심(無心)이다. 무심만 잡으면 선의 본체가 파악된다고 생각한 수좌는 어느 날 장작을 패다가 '무심이 바로 눈앞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수좌는 장작을 패는 척하면서 무심의 거동을 살폈다. 그러다가 틀림없만 한다. 문제는 '나라는 의식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에 있다. 사람이 자신의 주체영이 되는 '나라는 의식을 제거할 수 있을까. 답은 불가능하다.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다는 불가(佛敎)의 이야기처럼 '나라는 것을 아무리 잘 갈고 닦아도 (수도하여도) 하나님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다. 오직 '나라는 의식을 죽여 없앨 수 있는 존재는 구세주뿐이다. 구세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감로의 영을 받아야 원죄가 되는 '나라는 의식을 벗어날 수 있다.

아! 그러나 이번에도 실패했다. 무심은 훨씬 앞질러 수좌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무심의 그 같은 눈치 빠른 행동은 계속되어 수좌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다. 할 수 없이 무심을 잡는 것을 포기한 수좌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장작을 패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도끼자루가 빠져버렸다. 그 순간 도끼자루에서 빠진 도끼날이 무심을 찍어버렸다. 아! 아무 생각 없이 그야말로 무심(無心)한 도끼질에 '무심'은 집히고 만 것이다.

무심(無心)이란 불가(佛敎) 용어로 널리 통용되는 무아(無我)와 같은 말이다. 무아의 경지(境地)에 이르러야 도통(道通)한다고 하지만 억조창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무아가 무엇인지 무심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다. 다른 표현으로 진아(眞我)와 가아(假我)라는 말이 있는데, 도(道)에 이르는 마음을 가진 나와 사탄의 마음에 끌리는 나로 구분한다.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화두가 거짓 나를 버리고 참 나를 찾는 것이다.

참 나는 만유(萬有)의 진상(眞相)이요, 생명의 근원인 부처님 즉 하나님이고, 썼는데, 이들 제단들을 빨리 다 팔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요지에 있는 제단들도 다 팔 수 있는 것들은 다 팔라고 하시는 것이다.

영모님께서 종교 활동을 중지하시려는 것이 아닌 이상 이와 같은 전도관의 간판적인 제단들을 다 팔라고 지시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다. 아무리 종단이 어려워도 종교 활동의 근간이 되는 예배 장소를 판다는 것은 교단을 없애겠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전도관의 상징적인 제단 건물인 서울 원효로의 이만제단이 팔려나가면서 교역자들과 교인들의 경

거짓 나는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의 악한 마음, 즉 마귀이다. 그런데 참 나인 나를 거짓 나인 욕심의 영인 마귀가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을 죄인이라 한다. 그러므로 현재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주체의식인 마귀를 제거해야 진아(眞我)인 하나님만 남게 된다. 그것이 바로 무아(無我)인 것이다. 그야말로 무심한 도끼질(나를)에 무심(마귀)을 잡았다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인류 최초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긴 미륵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감로의 정도를 들고 나오셨다. 미륵부처님 되시는 조희성 선생은 진아와 가아, 그리고 무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쾌히 설명해 주신다.

'마귀가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고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를 속여야 하는 것이다. 내 생각의 반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지 않고 잠이 올 때는 잠을 자지 않고, 쉬고 싶으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는 철저히 '나라는 의식의 반대로 살아야 한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이므로 나를 속여야 된다. 내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그 마음이 진아(眞我)인 하나님에게 쫓겨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완전히 없어진 백지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라는 것을 가루도 존재도 없이 없애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조희성의 주체 영이 죽어버리고 나니, 내 이름도 몰랐고 나이도 몰랐으며 30여 년을 산 집도 몰라서 주소를 보고 몰아서 찾아갔던 것 같다. 100% 하나님이 좌정하게 되니 산 천초목이 절을 하는 것을 이 눈으로 본 것이다. 나를 이간자가 곧 마귀를 이간자요, 세상을 이간자요, 사망권세를 이간자인 것이다.*

악과 마음의 갈등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영모님은 부산 기장에서 설교말씀(1981. 7. 4) 중 "전도사 생활 오래해도 소용없다. 손 떼고 나가는 것이 낫다. 이 바탕을 없애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낫다. 지금이라도 하나씩 키우면 된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이 영모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 저 멀리 소사 신앙촌의 밀실에서 아담 이간자 조희성님이 전도하러 1981년 8월 18일에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집 저 집 옮겨가서 가정예배를 보며 한 사람씩 끌어 모아 의인을 만드는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전도관 해산 작전은 구세주 출현을 알릴 목적

박태선 장로와 그분이 이끈 전도관 역사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매우 잘 못되어 있다. 그분을 따랐던 신자들도 그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분은 왜 전도관을 세웠으며, 잘 나가던 전도관을 왜 돌연 해산하였으며, 자신을 믿고 따르던 교인들을 왜 내쫓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본다.

박태선 장로는 성경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 병자들은 병이 치유되는 신유(神癒)의 은혜가 일어나며, 봉사가 눈을 뜨고, 병어리가 말을 하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짙추의 허리가 펴지는 불가사의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이러한 소문에 전국의 기독교인들은 앞 다투어 박 장로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에 위기를 느낀 기독교계는 박 장로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었다.

그러자 박 장로는 전도관(傳道館)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을 모아 신앙공동체를 세웠다. 소사 신앙촌을 필두로 덕소 신앙촌, 기

장 신앙촌을 차례로 건설하는 등 잘 운영하여 나가던 중 1980년에 이르러 박 장로는 돌연 전도관을 해산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다. 잘 나가던 사업을 고의로 부도를 내고, 열렬한 신도들을 갖은 누명을 씌워 내쫓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을 천상전하의 유일한 상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나, 전도관 조직을 가지고 5만 년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을 마귀 속에서 구출하여 모처(某處)에 모셔놓았다는 등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계속 쏟아냈다. 그 후 몇 년 간 박 장로가 행한 언행은 그를 믿고 따랐던 150만 명의 전도관 교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암호였다.

이와 같이 영모님(박태선 장로님)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한 것이 아니고, 삼수(三數=삼위三位)를 이루기 위해서 마귀를 속이면서 숨은 역사를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1980년 10월 15일 아담 이간자가 완성되는 시점을 맞추어서 신앙촌 공장들을 일부러 부도를 내고 전도관 교인들을 해산하는 작업을 하니, 죄인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